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ING 그룹, 15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각 추진

-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ING 그룹은 최근 최소 15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위스 및 아시아의 Private Banking(이하 PB)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- 금번 매각은 2008년 10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(142억 달러)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는 ING그룹의 "back to basics" 프로그램에 따른 것임.
 - ING 그룹은 올 초 8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고, 유럽 내의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로 결정함.
- ING 그룹의 2008년 전 세계 PB 사업은 1억1천1백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보다 58% 감소됨에 따라 올 초부터 매각 물망에 오르게 됨.
 - AIG 그룹의 자산 매각 경험에 비추어 볼 때, PB 사업은 인수 수요자 많은 자산으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됨.
 - ING 그룹의 스위스 PB는 다음 주에 최종 경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며, 인수 희망자는 스위스 PB인 Julius Baer를 비롯하여 Standard Chartered, HSBC, Barclays, DBS Bank of Singapore 등으로 알려짐.
 - 그러나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의 핵심 PB는 매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.
 - ING 그룹의 아시아 PB는 빠른 성장 속도를 시현해 왔지만 금융위기 동안 큰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금번 매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임.
 - 아시아 PB는 6월말 기준으로 110억 유로의 자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짐.
- 그 밖에도 1월에 ING 캐나다의 지분(14억 유로)이 매각되었고, 7월에 칠레의 연금 사업부문이 3억5천만 달러에 매각된 바 있음.
 - 그동안 손실이 누적 되어 온 일본 및 중국의 생명보험 사업부문과 호주의 ING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.

(Financial Times, 8/27)